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예수님〉,  
11세기, 채색삽화, 18x13cm,  
런던서 도서관, 다름스타트, 독일

### 성화해설

성경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이 삽화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권위있는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한쪽 손을 내밀어 여인의 손을 잡고 치유해 주시고 있다. 예수님 앞에 작은 모습으로 표현된 시몬의 장모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맡기며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뒤에는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놀라운 치유 현장을 목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입당송** 시편 95(94),6-7 참조

**제1독서** 욕기 7,1-4,6-7

**화답송** 시편 147(146),1-2,3-4,5-6(◎3- 참조)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쳐 주시도다.**

○ 좋기도 하여라, 우리 하느님께 찬미 노래 부름이.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께 어울리는 찬양을 드림이. 주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도다. ◎

○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도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을 지어 주시도다. ◎

○ 우리 주님께서서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시며,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으시도다. 주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

을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도다. ◎

**제2독서** 1코린 9,16-19,22-23

**복음환호송** 마태 8,17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

**복음** 마르 1,29-39

**영성체송**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 주님께서서는 목마른 이에게 물을 먹이시고, 배고픈 이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도다.

#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났던 것이다



구요비 읍신부 | 가톨릭대 성신교정 영성지도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이 회당에서 가정을 거쳐 넓은 세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정 안에서 ‘장모’님이 차지하는 비중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듯싶다. 설 전에 내가 참으로 존경하는 박아우구스티노 형제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른다.

“1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장모님은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중을 드신 분이셨습니다. 좋은 유교적 집안의 맏며느리는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한다(奉祭祀 接賓客)는 전통을 이어가는 분이죠. 종가(宗家)댁의 맏며느리로서 사위, 자식, 친척, 손님들 각자의 자리를 제대로 마련하여 마음 편안히 머무르도록 늘 배려해 주신 분이셔서 이분의 빈자리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으로 사경(死境)을 헤매는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31절). 그러자 부인은 예수님의 시중을 드셨다(마태 8,15).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34절), 마치 장모님이 사랑하는 사위와 가족 친지들을 시중들듯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다! 안식일 저녁에도 밤늦도록 끊임없이 밀려드는 많은 병자들을 잠시도 쉬지 못한 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따뜻하고 자상하게 고쳐주신다. 어떻게 예수님은 갖가지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아주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지니실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35절).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맑은 정신과 기운으로 당신을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하신다. 예수님은 기도 안에서 늘 하느님 아버지(聖父)의 심오한 지혜와 권능, 자비심(慈悲心)으로 자신을 채우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神性)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콜로 2,9-10).”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깊은 일

치를 이루시기에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신다(루카 11,20; 17,20-21).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활동, 관상과 선교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게 된다. “내 말을 믿어 주십시오. 마르타와 마리아는 나란히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잘 모시고 항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아벨라의 성녀 테레사).

기도하시던 외딴곳에서 갑자기 ‘온 갈릴래아’로 예수님의 활동무대가 바뀌고, 이분께서는 무척이나 서두르시고 바빠지셨다(38절).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났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하고 바로 사도는 말하지 않았던가? 초기 조선 천주교회를 창립하신 신앙의 선조들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일념으로 분주하게 움직이시던 모습 또한 이와 같지 않았을까?

“... 계묘, 갑진 년 간 부터 연소배 중에서 재기 있는 자들이 천학이라는 학설을 가르쳐 인도하였는데, 마치 상제가 친히 내려와서 사명을 띤 사람에게 가르쳐 알림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安鼎福, 順菴集, 「...自癸卯甲辰年間 少輩之有才氣者 唱爲天學之說 有若上帝親降 而詔使者然...」)”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났던 것이다”  
(마르 1, 38).

# 사랑이란 미안하다고 말 하는 것



맹경순 베로니카 | 평화방송 아나운서 위원

**영** 화 ‘러브스토리’ 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사랑이란 후회하지 않는 것’ 이라고 번역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사랑이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란 해석도 있었다.

2003년 10월, 나는 파리로 휴가 여행을 떠났었다. 그 전 해 큰아이가 있던 캐나다에 갈 때 남편은 내가 워낙 그런 일에 치밀하지 못한 것이 못 미더워 비행기 도착 시간, 갈아탈 캐나다 국내항공 시간, 돌아올 때 타야 할 비행기 시간 등을 코팅해서 열 개를 만들어 가방과 코트 옷 주머니 곳곳에 넣어주었다. 완전히 팔순 되신 노인 미국 딸네 집 갈 때 상황이었다. 어쨌든 그다음해 파리에서 노르망디며 리지외, 옹플러, 파리 시내를 썩썩 돌아다녔다. 잘 놀고 집에 돌아와보니 남편이 자랑스럽게 ‘거실 카펫 당신 없을 때 내가 빨았지...’ 교과서대로라면 ‘어머나, 힘들었겠어요. 나 혼자 재미있게 놀고 와서 미안해요.’ 이것이 정석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1초도 쉬지 않고 ‘어머나, 그거 올 백 프로인데 물빨래 하면 어떻게 해! 당신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남편 얼굴이 썩썩하건 말건 정확히 지적하고 잘못을 인식시킨 후 나는 그 일을 잊어버렸다. 그 후 한 달 보름 후 그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스스로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진단을 명확히 전달받았어도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어놓지 않았다. 두 달 동안 아이들과 그 사람이 떠

난 후 닥칠 일들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은행 계좌번호, 거래처와 과정 확인 등, 그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순식간에 해결될 일을 그냥 했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힘들다고 뭘 확인하라... 그런 생각이었다. 마지막 날 호스피스 병실로 옮겼다. 그는 이미 말이 없고 의식도 없었다. 심장 그래프만 불규칙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저렇게 오래가면 힘들겠다.’ 그것이 임종인 줄도 모르고 아이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토라진 계집애처럼 그 그래프는 딱 멈추었다. 그렇게 딱 두 달을 가족과 함께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이제 와 생각하면 사랑이란 것은 그때그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왜 그렇게 올 100% 카펫 건이 그리 오래 내 맘에 가책이 되는지... 더 크게 잘못된 일도 많은데 말이다. 캐나다 코팅 건은 대비가 되어 어찌 그리 가책을 느끼게 하는지, 웃기는 이야기지만 남편이 나에게 잘못된 일도 막 생각해봤다. 그렇다고 그 가책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올해 바오로의 해 전대사 은총에 나도 물론 몇 대를 돌아가신 분께 드렸다. 연옥에 있는지 하느님의 자비로 이미 평안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전대사 배달을 받으면 그는 그럴 것이다. ‘이 마누라, 이제는 미안한 거 아는가 보다.’ 사랑이란 미안하다, 고맙다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훨씬 기쁘고 상대가 미쁨 것 같다. 그리고 비로소 미안함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그를 진실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6

## 하느님께서서는 생명 파괴뿐 아니라 약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책임을 물으신다

“하느님께서서는 카인에게,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창세 4,10)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질문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생명의 복음 10항).

카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카인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며 시치미 댁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카인에게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며 무죄한 아벨의 희생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카인의 태도와 비슷하게 힘없는 이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태만이 생명에 대한 공격을 더 악화시킵니다(생명의 복음 8-10항). 카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벌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힘없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하느님께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서울대교구 지구별 혼인강좌 안내

· 혼인성사를 앞둔 분들은 아래의 혼인강좌를 반드시 수료하기 바랍니다(2009년 1월 현재).  
 · 문의: 727-2069~71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지구	구역	장소	문의	일시	비고
1지구	종구 용산구	명동성당	774-1784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4시~7시	7월 휴강
		정동 프란치스코 수도회	6364-2221	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4시~8시	휴강 없음
2지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성당	705-8161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30분~9시	1·2·7·8월 휴강
3지구	은평구	불광동성당	355-0545, 356-0545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5시~8시	7월 휴강
4지구	종로구 성북구	혜화동성당	764-0221, 2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6시30분~9시30분	7·12월 휴강
5지구	동대문구 종량구	신내동성당	2208-2577, 8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5시~8시	8월 휴강
6지구	도봉구 강북구	창동성당	991-2121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8시~10시	12월 휴강
7지구	노원구	노원성당	933-9981	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3시~6시30분	1·8월 휴강
8지구	성동구 광진구	구의동성당	3436-3090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5시~7시	1·7·12월 휴강
9지구	강동구	천호동성당	470-5821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10시	1·8월 휴강
10지구	송파구	신천동성당	2203-6161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7시~9시	1·8월 휴강
11지구	강남구	대치동성당	562-0195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2시30분~6시	휴강 없음
12지구	서초구	방배동성당	584-9731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5시~9시	7·12월 휴강
13지구	관악구 동작구	상도동성당	826-0680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2시~6시30분	1·8월 휴강
14지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구로3동성당	857-8541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6시~10시	휴강 없음
15지구	강서구 양천구	화곡2동성당	2065-3821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후 2시~5시30분	7·12월 휴강
		목3동성당	2644-6633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2시~6시30분	1·6·7월 휴강
서울대교구 약혼자 주말 (2박3일) 홈페이지: www.cee.or.kr		대림동 살레시오 피정의 집	318-2079	50차: 1월9일~11일 52차: 3월27일~29일 54차: 6월12일~14일 56차: 8월21일~23일 58차: 10월9일~11일 60차: 12월11일~13일	51차: 2월6일~8일 53차: 4월17일~19일 55차: 7월10일~12일 57차: 9월11일~13일 59차: 11월6일~8일 (2009년 11회 실시)

소식

2월11일(수)은 '세계 병자의 날' 입니다.

'세계 병자의 날'은 병자들과 병자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를 기억하고 고통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며 병자들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키우도록 일깨우는 날입니다. 병자들의 빠른 쾌유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소공동체 성장론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2월10일(화)	신도림동성당	연희동성당
2월11일(수)		흑석동·봉천동성당(지구자체)
2월12일(목)	방배동성당	혜화동성당
2월13일(금)	창동성당	오금동성당(2시30분)
2009년 '명동(가톨릭회관)' 월례연수는 없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2월12일 김선영 요셉 신부(76세) 1974년, 용산
- 2월15일 이삼복 요한 신부(84세) 1997년, 용인

홍인수(세례자요한) 신부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홍인수(세례자요한, 67세) 신부님이 지난 1월23일(금)에 선종하셨습니다. 1942년 황해도 장연군에서 출생하여 1967년 사제수품 후 제기동·구과발·명동·오류동·전농동·수색·석관동·번동·석촌동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2008년부터 휴양 중이셨습니다. 1월25일(일)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모임에 안장되었습니다.

평화화랑: 가톨릭 미술 아카데미 회원전

평화화랑은 가톨릭 미술 아카데미 회원전을 2월11일(수)~17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교구청 기관과 단체 알림

실버 카리타스 성가단원 모집

- 대상: 성음악을 좋아하는 남녀 교우(연령제한 없음)
- 문의: 010-5532-1456 총무 / 주최: 노인복지위원회

청소년국 종교등부 직원 모집

- 대상: 만 25세 이상 4년제 대졸자, 종교등부 주일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자 / 문의: 3672-2894(2월17일까지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foryouth.or.kr) 참조

2009 사목위원 교육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분과별 1인 5천 원
- 문의: 727-2062~3 사목국 일반교육부(2월9일까지 접수)

교육분과	2월11일(수) 오후 7시30분~9시30분
시설분과	2월12일(목) 오후 7시30분~9시30분
사회복지분과	2월13일(금) 오후 7시30분~9시30분

낙태치유 프로그램 및 월례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 회비 없음
- 때, 곳: 2월10일(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교구 사목센터 6층 소성당 / 문의: 727-2071(www.ihome.or.kr) 사목국 가정사목부

원목봉사자교육 제1과정

- 내용: 환자돌봄을 위한 기초 교육 / 회비: 3만 원(2월18일까지)
- 때: 2월24일~3월24일 매주(화) 오전 10시30분~12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27-2073 일반병원사목부

2009학년도 계발활동 KYCS반 신청

- 대상: 중·고등학교 계발활동반 운영을 원하시는 선생님
- 프로그램: 가톨릭반(예비신자반), 공예반, 문화반, 심성계발반, Teen STAR반(성교육반) / 홈페이지: www.kycs.or.kr
- 문의: 553-7320~2 청소년국 중·고등학교 사목부(KYCS)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2. 15. 14시-17시	사당동 본원	010-2704-6186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2. 15. 14시	한강진 수녀원	010-4529-3429
돈 보스코 여자재속회(VDB)	2. 15. 10시-17시	살레시오 3층(신길동)	011-797-3115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2. 15. 13시-15시	안산 수련소	010-2882-6227
마리아남자 수도회	2. 15. 14시	문의요망	010-2406-8547
마리아의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2. 15. 14시	가리봉 수녀원	016-570-0939
성가소비녀회(인천관구)	2. 15. 13시30분	관구본원(부천소사동)	011-476-5801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2. 15. 13시30분	관구 본원(길음동)	010-2480-5801
삼성산 성령 수녀회	2. 15. 14시-17시	수녀원 본원	010-2738-0039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	2. 15. 14시-17시	돈암동 본원	010-7101-9302
성 바오로딸 수도회	2. 14. 15시	미아리 본원	011-232-1611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 사랑의 딸회	2. 15. 14시	군포 수녀원	010-6625-0927
세례자 성 요한 수녀회	2. 15. 15시	수녀회 수원 본원	010-2432-4230
예수 성심 시녀회	2. 15. 14시	태릉성당 수녀원	010-2820-1011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자매회	2. 15. 13시-14시	음성 꽃동네	011-806-6879
위로의 성모 수녀회	2. 15. 14시	성북동 본원	010-2210-3660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2. 15. 14시	계산 서원(대구)	010-9407-6219





평화방송·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사도 바오로 탄생 2000주년 '바오로의 해' 제2차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

2009년 3월18(19)일~28(29)일



사도 바오로 탄생 2000주년 바오로의 해를 맞아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과 평화방송·평화신문은 바오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 뱃길로 떠나는 크루즈 성지순례를 마련합니다.

제1차 크루즈 성지순례(2008년 11월5일~15일)에 이어 바오로의 해에 떠나는 제2차 크루즈 성지순례는 열정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도들의 신앙과 삶을 따르는 배움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뎠던 나태한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신선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의 행로를 따라 뱃길로 떠나는 새롭고 뜻깊은 크루즈 성지순례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순례 일정: 2009년 3월18(19)일~28(29)일 10박11일
- 순례 여정: 그리스-터키(아테네-코린토-테살로니카-필리파-이스탄불-페르가몬-밀레투스-에페소-파트모스)
- 순례 경비: 378만원~488만원(객실에 따라 7가지)
- 접수 마감: 2월13일(금)까지 200명 선착순 마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화방송여행사(2266-15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 입장권: 성인 1만2천 원, 초·중·고생 9천 원, 유아 7천 원
- 예약 및 문의: 1544-4594(www.korearubens.co.kr)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이 3월13일(금)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에서 열린다. '플란더스의 개'로 친숙한 바로크 미술의 거장 '피터 폴 루벤스'의 작품 19점을 비롯하여 당시의 유화작품 총 75점을 전시한다. 루벤스의 '발리첼라의 성모상', 반 다이크의 '성모승천' 등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관람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4천 원 할인한다 (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가능).

### 연극 '아일랜드'

- 입장권: R석 3만5천 원, S석 2만5천 원 / 예매 및 문의: 764-8760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6시, 19시 / 일 15시, 18시



1974년 아들 후가드와 존 카니, 윈스턴 쇼나 등의 3인이 완성한 남아연방의 비인종적인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연극 '아일랜드'를 2월 14일(토)~4월4일(토), 대학로 SM 아트홀에서 공연한다. 제14회 한국 뮤지컬 대상 신인상을 받은 조정석과 실력과 배우 양준모가 출연해 두남자의 자유와 투쟁, 절규를 보여준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가능).